

2024년 3월 24일. 24 March 2024
금문교회 중려주일예배. GGPC Palm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2 And Jesus entered the temple[b] and drove out all who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13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14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15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did, and the children crying out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16 and they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17 And leaving them, he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lodged there.
마태복음 Matthew 21:12-17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등의 일로 고통을 겪는 인류를 구원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 받지 못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구원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아들. Two Sons

마태복음 Matthew 21:23-32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And when he entered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up to him as he was teaching, and said,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Jesus answered them, "I also will ask you one question, and if you tell me the answer, then I also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The baptism of John, from where did it come? From heaven or from man?" And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to us,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But if we say, 'From man,' we are afraid of the crowd,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So they answered Jesus, "We do not know." And he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What do you think? A man had two sons. And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in the vineyard today.'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And he answere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And he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And he answered, 'I go, sir,' but did not go.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Which of the two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id, "The first."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go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For John came to you in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believed him. And even when you saw it, you did not afterward change your minds and believe him.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호산나!"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호산나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Save us, we pray, O LORD! O LORD, we pray, give us success!
시편 Psalm 118:25

스가라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aloud,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is he,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스가랴 Zechariah 9:9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마태복음 Matthew 21:13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거주하셨습니다. 베다니(Beit Te’nea)는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병환자들이 살던, 낮고 천한 동네였습니다.

이튿날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fig tree)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May no fruit ever come from you again!
마태복음 Matthew 21:19d

그때에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But even if you say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thrown into the sea, it will happen. And whatever you ask in prayer, you will receive, if you have faith.
마태복음 Matthew 21:21d-22a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마태복음 Matthew 21:23b-c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특히 호산나 환영과 함께 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대답을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냐?
The baptism of John, from where did it come? From heaven or from man?
마태복음 Matthew 21:25a

만일 이 대답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What do you think?
마태복음 Mattehew 21:28a

이제부터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합니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And when he entered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up to him as he was teaching, and said,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예수님께서 호산나 입성했던 그 날 늦게 베다니에 나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1.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2.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더라면, 듣고 깨닫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Jesus answered them, "I also will ask you one question, and if you tell me the answer, then I also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The baptism of John, from where did it come? From heaven or from man?" And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to us,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요한의 세례가.

1. 어디서부터 왔느냐?
2.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신 두 가지 가능성, 곧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논의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면 그들이 믿었어야 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인정하면,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물으신 것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But if we say, 'From man,' we are afraid of the crowd,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그들이 두 번째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문제는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배척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So they answered Jesus, "We do not know." And he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실지는, 그들이 알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않을 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사실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하늘의 권세에 대하여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비유로, 설교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많은 기적과 이사로써!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What do you think? A man had two sons. And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in the vineyard today.’

그 대신,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는 드러냄과 감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two sons)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오늘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And he answere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그의 대답은 “예!”(Yes!) 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And he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And he answered, ‘I go, sir,’ but did not go.

둘째는 “싫습니다!”(No!) 했습니다. 그랬다가 후에 회개하고 가서 일했습니다.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Which of the two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id, “The first.”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go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이제 주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Which of the two did the will of his father?

그들의 대답입니다: 첫째 아들(the first son)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Truly, I say to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go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For John came to you in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believed him. And even when you saw it, you did not afterward change your minds and believe him.

세례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도를 전파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말아들은(the first son) 말로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둘째아들은(the second son) "싫습니다!" 하고, 후에 회개하였습니다. 가서 일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그랬습니다. 먼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떠났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후의 삶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선포한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고, 거기서 성문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주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들 비유가 있습니다(마태복음 Matthew 20:1-16). 여기서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불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last.
마태복음 Matthew 20:16

나중 와서 일한 자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the ones called first)입니다. 말아들(the first son) 같은 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들 유대인들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all of us)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초점은 "사람 나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아들 같고, 다른 사람은 둘째아들 같다는. 그렇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부르심 받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섰습니다. 신앙고백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명령에 진심으로 응답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우리가 젊은 때는 맡아들 노릇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작은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구별해내는 일보다는, 모두에게 다같이,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길을 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들과 다른 어떤 이들을 비교하는 대신, 자기 스스로를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어떤 "편 가르기"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여기고를 지나실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이미 부르짖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이 주도하여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시각장애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해설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신분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간수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사도행전 Acts 16:31

그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맡아들이었던 삶을 버리고 둘째아들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Hosannah!
Jesus, Son of David!
Save us, now!

온 세상을 울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돌들이 소리쳐서, 온 땅에 가득한 가련한 자들을 들으십니다.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리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을 들으십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He answered, “I tell you, if these were silent,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누가복음 Luke 19:40

하나님께서 들으심의 의지입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For he who avenges blood is mindful of them. He does not forget the cry of the afflicted.

시편 Psalm 9:12

보십시오.

오늘 종려주일.

우리는 2천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모든 어린이들, 가난하고 천한 이들, 최악에 고통 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의 삶이 세리처럼 창기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권능으로써, 성령감동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